

"계열사육농가 참여가 늘고 있다."

발전추구 생산에만 전념 희망

육계사육농가의 계열화업체 계약사육 참여가 늘고있다. 이는 충청남·북도의 중부권 지역이 활발한데 계열주체의 유통물량 증가로 처리규모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열주체의 종계장, 부화장의 확보로 병아리의 안정적 공급과 사료의 고정적 판로확보와 연계돼 점차 사업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업농가에 계사시설개선자금지원 등 계열주체의 전업농 육성외지로 참여농가는 계속 늘 전망이다.

한편 참여농가는 육계경기가 불투명해 출하시세의 불안과 비싼 병아리로는 힘들어 사육하여도 적정한 이익이 안날뿐만 아니라 병아리를 구하기도 힘들어 계약농가에 참여하는 것이 수익성이 높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전한다.

최근에는 계약조건의 개선과 시설 개선자금지원 등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의 육계사육업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차제에 계열주체를 통한 육계농가의 시설개선 자금지원이 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닭고기 전문 가족식당 성황 영육농산 "영가" 개설

영육농산(대표 김태웅)이 닭요리전문점 "영가"를 개설 성황리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닭고기 메뉴를 위주로 가족단위 웨미리레스토랑형인 "영가"는 외국 브랜드와 메뉴의 차별화로 한방 삼계탕, 닭고기 덮밥, 닭고기 탕수육, 로스트치킨 등을 판매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서울 망우동에서 80평 규모의

대형매장으로 꾸민 동사는 그동안 계열사육으로 원료육 뿐만 아니라 부분육, 가공육을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이번 닭전문 웨미리레스토랑 개장으로 개방화 시대의 경쟁력제고와 닭고기 소비확대에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닭고기 외식 산업의 확대를 위해 계속적으로 점포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영가(榮家)전화 : (02)434-0909

육류위생수준 향상대책 추진

정부, 잔류물질검사 등 국제수준

수입개방화시대를 맞아 정부는 국내 육류위생수준향상을 위해 가축방역 및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지난 6월 15일 축산관계 회의에서는 육류위생수준향상을 위해 배합사료, 관리와 도축장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동물응용의약품 안전사용, 잔류물질 검사기능 강화를 꾸준히 실행해 육류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면 식육으로 유통금지하는 물론 농가를 추적해 특별관리 해 나갈 예정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육류위생수준향상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점차적으로 위생 및 방역우수농장 정부인증제도 실시와 잔류물질조사 프로그램개발 등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잔류물질 검출시 철저한 잔류원인을 추적하여 경위를 밝혀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계열화업체는 종계장, 계

열 농장 방역위생강화는 물론 도계위생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세계곡물재고 13%줄듯 미산옥수수 재고51%감소

1995/96 세계곡물수급상황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

6월초 USDA발표에 의하면 세계 소맥과 쌀의 생산, 공급, 무역, 소비 및 이월량은 전년도와 별차이가 없으나 미국 옥수수의 경작면적 감소와 파종시기 지연으로 인한 수확량 저조가 예상된다.

미산 옥수수의 금년도 수확 예상량은 전년대비 전월의 15% 보다 더 낮은 22% 감소가 예상되며 농가 평균 수취가격도 전월의 11% 보다 더 높은 18% 상승이 예상된다.

부업축산, 배합사료 부가세 감면 전·기업농가는 혜택없어 유감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 감면이 하반기부터 영세부업축산농가에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조세감면 규제법을 개정해 연간 약 6백 50억원의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비과세 부업농가에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축산물 완전 수입 개방을 앞두고 양축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일반양축농가는 물론 전업·기업 축산인들에게도 빠른 시일내에 적용되기를 축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육계의 경우 1만수 이하 농가가 거의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육계업계는 자구노력으로 계열화생산 등 수출산업화를 유도하고 있는 만큼 국제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전업·기업농가 감면 혜택 확대를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본회 태국 도계산업시찰

200여 닭제품에 깊은 관심

지난 5월 21일 부터 5일간 본회 회원사 관계자 17명으로 구성된 태국 도계산업시찰단이(단장 유현중 부회장)주한 태국대사관 협조로 CP사, 사하FARM, BFI 등 태국 유수의 계열화 생산업체를 시찰하였다.

시찰단은 태국 농림성의 안내로 계열농장, 도계장, 가공농장 등을 살피고 일본, EC지역으로 수출되는 2백여가지의 닭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시아 최대의 닭고기 수출국인 태국

은 닭고기 가공제품의 한국수출을 희망하고 있다.

시찰 참가자들은 닭생산비 뿐만 아니라 닭고기 가공제품의 무차별적인 경쟁에 국내 닭고기생산업체의 생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회원사 실태조사

조직강화 통한 협회 활성화 일환

본회는 6월 9일(금) 가금처리분과위원회의 결과 조직강화를 통한 협회 활성화 방안으로 전

회원사의 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있다.

도계시설 현황, 시설개선 및 사업추진 계획, 금후 사업전망에 관한 현지 출장조사 결과 대부분의 회원사들은 도계수수료, 경쟁력 약화, 인력난에 따른 경영부진으로 위탁도계사업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공장별 연계 또는 통합, 중상인과의 계약을 통한 공동경영, 지역별 계약사육 등에 관심을 갖고있으나 대체로 불투명한 사업성으로 확신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문제점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성수기 닭값 약세전망, 소비는 예년수준

정부, 닭값하락에 대비 비축자금 배정

지난 2년간 비교적 높았던 닭가격에 비해 금년도 복성수기는 농가기대가격에 못미칠것으로 축산관측결과 나타나고 있다.

이는 550원~600원에 달하는 육용병아리 가격에도 불구하고 입식열기가 과열되어 복중 출하량이 10~15%증가가 예상되는 데다 수입냉동닭고기가 기간중에 집중방출될 전망이다에다 뚜렷한 소비신장의 조짐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외식업체들을 중심으로 날개, 다리 등 부분육의 소비증가가 뚜렷한 반면에 통닭 소비증가는 예년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역별 물량체화로 인한 덩핑 등 유통에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닭값 하락에 대비 6월 초 계열화업체, 양계조합등에 56

억원의 수매비축자금을 배정하였다.

닭계열화사업 참여 활발

신규 닭계열화사업 추진이 활발하다.전북양계협동조합(조합장 이기동)은 지난 3월 5만수규모의 도계장을 완공하였고, 화성식품(대표 김원천)도 전북 군산시 외곽에 시간당 8천수 규모 도계장과 계열 종계장 건립에 착수 금년말 완공목표로 추진중이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화인코리아(대표 나원주)가 도계시설을 확충하였고 라인농산(대표 공명근)은 전남 장성군 일대에 시범양계단지 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닭계열화사업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